

전주 금융복지상담소 금융소외계층 '수호천사'

장기채무자 등 대상 채무조정·저금리 전환 등 원스톱 서비스
2016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3462건 상담 24억원 빚 탕감 도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과중한 채무와 경제적 궁핍의 악순환으로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는 '수호천사'가 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장기채무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일자리 상담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저금리대출 전환안내 등 주력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9월 문을 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현재까지 총 3462건의 채무조정과 채무상담을 통해 52명의 채무액 24억 2000여 만원을 탕감해줬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모금된 후원금을 활용, 지난 3년간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통해 154명의 부채 23억2900만원을 없애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 복지 시민강좌, 사회초년생 대상 청년층 금융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 재무관리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 단오제 등 전주시 주관 행사에서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후원금 모금 운동과

금융복지 상담소 홍보 등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시 금융복지상담소에는 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가계 채무관리 상담(가계 수입과 지출균형, 교

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관리 등) ▲채무자 맞춤형 채무 조정 상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서민금융지원안내) ▲시민 금융복지 교육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 사금융 예방 상담(대부업체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돕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 민원실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

화(063-281-9191~3)하면 된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가계부채 등 채무상태 악화로 빈곤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장기채무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일자리 상담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저금리대출 전환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전주시 제공>



순창북중학교 역도팀.

7명의 국가대표 배출 순창북중 역도팀 '대한민국 체육 빛낸 인물' 우수상 수상

순창북중학교 역도팀이 대한민국 체육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10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가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도내에서는 순창북중학교 역도팀과 부안군체육회 정명순 생활지도자가 각각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북 역도 간판인 유동주(진안군청) 선수와 김경열 전북도청 레슬링 감독, 전북체육중학교 근대5종 임성택 지도자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순창북중학교 역도팀은 지난해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역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였다.

특히 창단 26년만에 3관왕 선수를 2명이나 배출했고, 현재까지 7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명순 지도자는 1200여명에 이르는 체조 동호인을 육성시키는 등 부안 지역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동주 선수는 지난해 전북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김경열 감독과 임성택 지도자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산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66억 투입

돌봄서비스·장애아동가족지원 등 22개 사업 추진

군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66억원을 확보했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서비스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개(26억원) ▲돌봄서비스 3개 사업(31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3개 사업(9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복지·보건·의료·

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사회참여 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되며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된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20%(4인 가구 553만원) 또는 140%(4인가구 645만원) 이하이며, 사업별 연령·가구특성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연령순, 저소득, 질환자 등)를 적용해 이용자가 선정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각안마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원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선비문화 교육·체험장 활용 정읍시, '태산선비원' 조성

정읍시는 칠보면 무성리 일원에 '최치원과 정국인의 태산선비원'을 조성해 태산선비문화권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장소로 구축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선비문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태산선비원을 4만2492㎡ 부지에 연면적 3000㎡의 규모로 조성한다.

태산선비원에는 선비체험관, 한옥체험관, 저잣거리 등이 들어선다.

시는 태산선비원을 조성해 먹거리, 볼거리 등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로 경쟁력 있는 관광 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 부지를 문화시설지역으로 결정했으며 올해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 등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태산선비원이 조성되면 김명관 고택과 한옥체험관, 구절초 축제장 등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 사계절 특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관광객 제공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스쿨존 교통사고 등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고창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창군은 지난 8일부터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다.

이 보험은 고창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는 보장을 확대해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상자, 농기계사고, 유독성 물질사고의 사망 및 휴유장애 등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상자, 유독성물질 사고 등 4종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할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i@

남원시, 고품질 쌀 생산 모판 흙 50만포 농가 지원

남원시가 질 좋은 쌀 생산을 목적으로 모판바닥에 까는 흙을 농가에게 지원한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14억 5000만원을 투입해 50만포(20㏓)의 상토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벼 재배 전 농가이다. 다만 재배면적 1000㎡ 이하 농가와 관외출입 경작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희망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량과 준중량, 중량, 입상, 유기농, 매편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유기농상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하순부터 농가 및 공동육묘장에 상토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양질의 상토공급은 풍년농사의 밑거름으로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작기령농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에 상토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합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주시 봉강동343-1번지의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3605-5000